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최재은작가 본전시 초청

24 February, 2016 이향휘 기자



설치 미술가 최재은(63)이 비무장지대(DMZ)를 배경으로 한 '꿈의 정원 프로젝트'로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에 참가한다.

국제갤러리는 최 작가가 5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에 초청받았다고 24일 밝혔다. 1970년대 중반 일본으로 떠났던 최재은은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일본관 작가로 선정된 경력이 있다.

2014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선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건축 100년을 조망한 한국관이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지난해 열린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본전시에선 임흥순 작가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은사자상을 받았다.